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빌 핀슨, Jr.  
데보라 맥콜리스터  
단 카난타  
밥 데일  
클로이스 스미스

Baptist Way Press®  
달拉斯, 텍사스

인도자 지침서,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판권소유 © : 2003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3년 1월

#### BAPTISTWAY 운영위원회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교회 건강과 성장 고문 : H. 린 에크버거(H. Lynn Eckeberger)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데니스 패럿(Dennis Parrott)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 한국어 집필위원회

단원 1, 1 ~ 4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1, 1 ~ 4과 인도자 지침서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김대형 목사 - 제자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5과 인도자 지침서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2, 6 ~ 7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3, 8 ~ 13과 인도자 지침서 번역 및 편집

최승오 목사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Royce Rose),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암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 인도자지침서

**빌 편슨, Jr.**, 텍사스 주총회의 명예 실무 총 책임자로 1-7과에 있는 "성경 주해"를 썼다. 편슨 박사는 현재 달라스 침례 대학(Dallas Baptist University)의 저명 교수로, 베일러 대학의 방문 교수, 그리고 텍사스 침례교 역사 센터의 자원 담당자로 섬기고 있다.

**데보라 맥콜리스터** 박사는 1-4과 까지의 "교사들을 위한 제안들"을 썼다. 맥콜리스터 박사는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달라스 침례 대학(Dallas Baptist University)에서 영어 교수로 제직중이다. 그녀는 베일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미시시피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 카난티**는 5-7과 까지의 "교사들을 위한 제안들"을 썼다. 단은 교육 사역자로 은퇴했다. 그는 텍사스, 웨이코에 있는 웨이코 제일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텍사스, 콜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파크데일 교회와 메모리알 교회를 담임했다. 그는 현재 웨이코에 살고 있다.

**밥 테일**은 8-13과 까지의 "성경 주해"를 썼다. 테일 박사는 버지니아 침례교 선교 위원회의 부 총책임자와 창조적 교회 지도자 개발 센터의 담당자로 섬겼다. 그는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살고 있다. 그는 싸우스웨스턴 침례 신학 대학원(B.D., Ph.D.)를 졸업했다.

**클로이스 스미스**는 8-13과의 "교사들을 위한 제안들"의 저자이며 휴스턴, 탈라우드 침례교회에서 약 27년간 교육 행정 부목사로 섬기는 은퇴했다. 그는 계속해서 크리스챤 교육 컨설턴트로 여러 교회들을 돋고 있다.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교사 혹은 학생일 경우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공부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들어가기를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저자의 해석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만약 여러분이 교사일 경우

1.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2. 첫 시간에는 각과마다의 학과일정을 언급하며 간단히 개요만을 설명한다. 4페이지에 있는 목차와 각과마다의 첫 페이지에 학과일정을 적게 한다.
3. 여러분은 *Baptist Standard* 나 인터넷에 제공된 많은 성경공부를 위한 도구들의 정보를 얻기 원할 것이다. *Baptist Standard* 를 구독하기 원하면 전화 214-630-4571로 연락하고,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 원하면 baptistway@bgct.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다른 참석자들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 각과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인도자 지침서*를 구입하라(한국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교사용 교재 자료들은 분반공부에 실제적이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공한다.
5. 성경구절, 본문,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고,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다른 자료들을 이용해 각과를 공부함으로 성경공부를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라.
6. 성경구절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구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라.

## 고린도전서: 세상 속의 교회

### 단원 1. 분열을 직면함

제 1 과	당신은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1:1-17)	6
제 2 과	십자가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18-2:2)	11
제 3 과	영적 성숙으로 변화됨 (고린도전서 2:14-3:16)	15
제 4 과	섬기는 지도력 (고린도전서 4:1-14)	19

### 단원 2. 세상 속에서의 삶

제 5 과	부도덕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 (고린도전서 5:1-11; 6:9-20)	24
제 6 과	결혼 - 선? 독신 - 선? (고린도전서 7:1-17, 25-35)	28
제 7 과	삶의 애매한 부분과의 씨름 (고린도전서 8:1-13; 9:19-26; 10:14-31.)	31

### 단원 3. 세상 속의 교회

제 8 과	우리의 예배 (고린도전서 11:2-16)	35
제 9 과	이것이 주의 만찬인가? (고린도전서 11:17-34)	38
제 10 과	나의 은사 (고전 12:4-31)	42
제 11 과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 (고전 13:1-13)	47
제 12 과	예수님을 전하기 (고전 14:1-25)	51
제 13 과	부활의 소망 (고전 15:3-20, 35-44, 50-57)	54

<b>[제 1 과]</b>  <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1:1-17	<h1 style="margin: 0;">당신은 왜 어울리지 못하는가</h1>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p><b>학습 주제</b>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순되며 크리스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도 서로 상반된다.</p> <p><b>탐구 질문</b>          서로를 적대하며 종종 분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p> <p><b>교육 목표</b>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열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모순되며 크리스챤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상반되는지를 설명한다.</p>	

## 성경주제

### 배경 이해

교회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분란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갈등의 이유 중에는 거의 보편적인 것들도 있다.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것도 바로 이런 것 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자면, 1세기의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매우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일치하기 어려운 견해들을 가진 경우가 많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다른 갈등의 원인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의 성숙도가 다양했던 것이다. 초신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삶과 회심으로 인도해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독교와 반대되는 세상의 일상적인 관점들과 습관들이 교인들에게 유혹거리가 되었다. “주의 말씀”에서 분명하지 않은 문제들이 사람들을 나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 본문해석

#### 설교사, 교회, 그리고 복음 (1:1-3)

1:1.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을 위임하여 세웠다.(행 11:25-26; 13:1-3)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교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라고 강조한다. 이 편지에서 그는 교회의 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그의 권위의 기초로 자신의 사도됨을 내세우고 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과 관련하여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편지는 분명하게 바울이 쓴 것이었다. 고린도인들은 비록 우리는 잘 모르지만, 소스데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 바울은 이 편지를 하나님의 애클레시아에게 보낸다. 헬라어 애클레시아는 한 도시를 다르리기 위해 부름 받은 자유 시민의 연합체를 의미한다. 바울은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자유케되어 함께 지체를 이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과 세속적인 애클레시아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의 회원에게는 그들 스스로를 다스릴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특정한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애클레시아에게 쓰고 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 고린도의 상황과 그곳에 존재하던 교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로마의 군대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위협이든 다 제거해버림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했다. 로마가 이뤄놓은 안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었다. 따라서 교역이 발달하게 되었고, 헬라어와 라틴어가 세계어가 되어 교역 뿐 아니라 사상의 교류를 가능케 했다. 바울은 로마가 닦아 놓은 도로와 해로를 사용하여 여행했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설교했었다.

여행과 교역의 중심지인 고린도는 1세기 세계의 주요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다. 중요한 육로와 해로가 고린도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고린도는 부유한 대도시였다. 또한 악과 부도덕이 번창했고 사람들은 다양한 헬라/로마 신들을 섬겼다. 이러한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과 사원은 도시 전역에 걸쳐 존재했었다. 아프로디테(아데미)의 신전이 도시 전체에 고루 퍼져 있었다. 여기에 속한 천 여명의 창기들은 이 곳에 예배하러 온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다.

1:3. 이것은 껌질 속에 있는 복음이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은혜와 평화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 각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은혜”는 헬라어의 인사말이었고, “평화”는 유대/히브리어의 인사말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불일치를 치료하는 것은 일치이며,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만 발견된다.

### 감사 (1:4-9)

1:4.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기에 앞서 바울은 감사를 돌려 드린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로 바로 돌려드리는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일에 대해 감사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계신 일에 대해 감사했다.

1:5.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만이 들어설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갈등의 원인의 한 부분을 이제 다루고자 한다. 방언을 말하는 것(12-14장)과 더 우월한 지식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1:18-2:5; 8:1-3) 등은 일단의 사람들을 교만으로 이끌었다. 교만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했다.

1:6. 바울의 간증은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아들의 선물과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인해 시작된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구원을 이룩해 내려하고 있었다.(빌 2:12)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도 지적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옛 것이 가고 새 것이 오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귀결된다고 했다.(고후 5:17)

1:7-8. 고린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고, 바울의 간증을 재확인했다. 그것은 이것이 전적으로 진리인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영적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길 원하셨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던” 것에 대해 말할 때 분명한 것은, 그는 이 땅에서 이미 완성된 예수의 사역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흠 없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를 통해서 된 것이다.

1:9. 감사의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교제 가운데 이끌기 위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신실하셨다.

### 교회 안에서의 분란 (1:10-12)

1:10. 바울이 교회의 분란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전에, 그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서로 동의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의 권면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지, 결단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이 이 호소는 부정적(“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측면과 긍정적 (“당신이 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는) 측면이 있다.

1:11. 불일치에 대해 다루면서도 바울은 “내 형제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과 고린도 그리스도인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글로에라는 제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에게 정직한 보고를 할만큼 신뢰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툼”이라는 말은 중요한 교리상의 차이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의 균열을 가리킨다.

1:12. 이 구절은 다툼이 주요 교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 증거가 된다. 바울은 내용의 차이나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 깊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얼 듯 보기에 다양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고린도를 방문했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설득력 있는 선교사인 아볼로, 계바 혹은 베드로도 방문했었다. 고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지도자들과 자신과의 관계에 따라 나뉘어졌다. 또 일부 경건이 지나친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면서 다른 그룹보다 자신들이 우월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낫추는 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의 지도자로 만든다.

### 교회의 분란에 대한 반응 (1:13-17)

1:13.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바울은 그런 분열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교제와 믿음에 있어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다고 했다.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자신의 이름으로가 아니라고 했다.

1:14-16.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세 자신이 침례 준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줌으로 그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 하지 않았다.

1:17. 바울은 이런 와중에서도 침례의 가치나 역할을 최소화시키지 않았다. 그의 주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주로 바울의 조력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일을 도왔다. 침례 준 사람의 지위, 역할, 호칭 등이 침례가 갖는 의미를 변경시키지 못한다. 침례에 있어 중요한 점은 침례받는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에 진정으로 반응했는가 여부이다. 침례의 방법 가운데 침수례는 옛 생활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새생활로 다시 태어난 것을 상징한다. 물에 잠기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기시켜 주며, 침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공부에 앞서 세상에서 분열과 다툼의 예가 될만한 기사를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서 가져 오라. (예를 들어 전쟁, 연예인의 이혼, 양육권 분쟁, 유명한 법정 소송 등등) 신문 기사들을 보여주고서, 반원들에게 이 기사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지 질문하라. 반원들에게 불일치가 세상에서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번과의 주제를 교재 가운데서 찾아 읽도록 부탁하라.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도 상반된 것이다”

3. 고린도 교회의 불일치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첫 번째 주요 관심사라는 것을 주목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인가?

불일치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학습 인도

4. 칠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

- 하나님은 누구신가
-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

5.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한 주제씩 맡는다.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1-9을 소리내어 읽는다.

6.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은 후,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맡은 그룹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교재의 1:1-9부분을 사용하여 바울이 사용한 용어, 예수, 그리스도, 주, 아버지 등에 대해 설명하라.

7. 두 번째 주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맡는 그룹이 발표하게 하라. 학생용 교재에 있는 고린 도전서 서론과 교사용 교재에 있는 “성경본문의 상황”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라.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부를 때, “성도”(1:2)라고 불렀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의 안에서 풍족”할 수 있었을까?(1:5) 그리고 왜 그는 그들을 “힘이 없다”고 했을까?(1:8)

8.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태도”를 맡은 그룹에게 발표하도록 하라.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아닌 지식을 나눠가진 것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

9.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접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대답들을 칠판에 받아 적으라. 가능한 답변들은 다음과 같다.

- 공통점을 찾으려 애써야 한다.
- 그들 역시 “성도”임을 기억해야 한다.
- 그들에게 구원을 함께 선물로 받았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그들에게 나아가기 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10.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접근법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11. 반원 중의 한사람에게 1:10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왜 바울은 “간곡하게 권하다”(NASB)와 같은 완곡한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 구절에서 그의 어조 가운데 긴박감을 느낄 수 있는가?

12. 1:11-17을 소리내어 읽으라. 이 당시 고린도교회의 상황에서 볼 때, 다툼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지도자가 더 훌륭한지, 어느 지도자가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등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한 시기와 교만이 분란의 원인이 되었음을 주목하라.(1:17)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자신을 포함한 메시지의 전달자, 혹은 전하는 방식보다 더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 적용 격려

13. 이 교회의 불일치의 원인은 교회 지도자에 관한 것이었음을 주목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보다 한 지도자를 더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가?
- 지도자들이 자신들보다 그리스도께 더 충성하라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4. 학생용 교재의 3번 질문에 대하여 토의해 보라. 각 사람에게 다음의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고린도전서 1:10; 빌립보서 2:1-2; 갈라디아서 1:6-9.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아무 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허락된 때가 있었을까?

15.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이 구절들을 공부한 후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치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 만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툼 적이 있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은가?

<b>[제 2 과]</b>	<h1 style="margin: 0;">십자가를 기억하라</h1>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1:18-2:2	<p><b>학습 주제</b>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동료 크리스챤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갖게 해준다.</p> <p><b>탐구 질문</b>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크리스챤들과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설자리는 어디인가?</p> <p><b>교육 목표</b>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동료 크리스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한다.</p>

## 성경주제

### 배경 이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선교사와 사도로서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른 그리스도인 지도자 즉, 아볼로와 베드로도 이 도시를 방문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교회를 가르쳤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대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논쟁과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고린도는 그 당시 세계에서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 영적인 도덕적인 어두움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강하고 연합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필요가 매우 강한 곳이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그 결과로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그 후 바울은 얼마간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도 갖고 있었다.

### 본문해석

####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1:18-25)

1:18.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는 오늘날의 반응은 바울 시대의 반응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유대인이 로마의 형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다. 인간적인 축면에서 볼 때, 십자가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고 있다.

처음에 나오는 “어리석음”과 “능력”간의 비교는 좀 낯설어 보인다. 왜 바울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비교하지 않는 것일까? 그는 사람들의 “지혜”가 구원에 전혀 쓸모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십자가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것이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구원이 추상적인 진리를 받아드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19. 바울은 이사야 29:14와 시편 33:10을 인용한다. 그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가 쓰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고린도인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뒷받침 해주는 것임을 드러낸다. 조상들의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폐하겠다고 예언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1:20. 바울은 그의 여행 중에 철학자들과 학자들을 맞선 적이 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내용에 대해 도전했었다. 유대 학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바울의 선언을 거부했었고, 헬라의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의 주장을 비웃었다. 바울은 물기를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 이렇게 물음으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없이하시고,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실 것을 지적한다.

1:21. 이 구절은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해석을 받아드리든지 강조점은 동일하다.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고, 이 지식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의 내용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1:22. 바울은 사람들에 복음에 반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믿기 위해서 기적을 요구했고, 반대로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요구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아직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1:23. 어떻게 하면 이런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심지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도 기적을 행하거나, 논리에 의존함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조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장애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중거함으로 극복한다. 그는 이러한 복음전파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혜에 영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1:24.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위한 것이다. 기독교 운동의 초기에 있었던 논쟁거리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대답은 분명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두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다. 아직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로 들릴 것이다.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집행 방법이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였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단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우월하다.

1:25.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거나 약한 분이 아니시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선언은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일종의 과장법을 쓴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의 그것과의 차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다.

### 겸손해야 하는 이유 (1:26-31)

1:26.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낮고 약한 계층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출신별로 볼 때도 귀족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전체는 대체적으로 낮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1:27.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려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응변가나 부유한 귀족이나 권세 있는 로마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복음의 전파되는 것과 삶이 변화되는 공로를 사람의 능력과 노력에 돌렸을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이유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1:28-29. 하나님의 선택은 대부분의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택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들의 부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하여 자랑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혹은 교육받은 자보다 무식한 사람을 더 선호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사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계속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부와 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자원과 비교할 때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30.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장 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을 잘 버는 것, 나라를 다스리고, 명성을 얻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관련 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해진 것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한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1:31.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 의와 거룩함, 구속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거나 자랑

할 여지가 없다. 바울은 예레미야 9:24을 인용하는데,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

### 십자가의 중심성 (2:1-2)

2:1. 인간의 응변과 지혜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 할 때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중 연설에서 응변은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의 헬라 세계에서 는 지도자의 필수 조건이었다. 헬라와 로마 전역에 응변과 연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즈음에 응변은 지도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 수준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수사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의 목적은 설득 당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락거리를 찾아온 것이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려 하였다.

바울 시대에는 공개 석상에서 벌이는 논쟁도 일상적인 모습 중의 하나였다. 바울보다 약 100여년 전에 위대한 사상가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바 진리를 가르쳤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제자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바울의 시대에 와서는 철학적 토론이 누가 논쟁에서 이기는가를 결정하는 승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때로 사람들이 철학적 사조를 신봉하기도 하였지만 그대로 살려하지는 않았다. 바울은 그런 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지혜를 사람들에게 심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였다.

2:2.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교사들의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 가르치기를 거절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는 교사들의 방법을 다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더 깊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선포하기 위해 단순하고 평이한 방법 사용하기를 더 좋아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울의 설득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 “당신은 너무 약하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음의 것을 당신에게 강력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이제 “당신은 너무 지혜롭다!”라고 적으라. 그리고 묻기를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라. 우리는 대개 연약함을 긍정적인 성품으로 쓰거나

“지혜”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울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다음의 사례 연구를 들려 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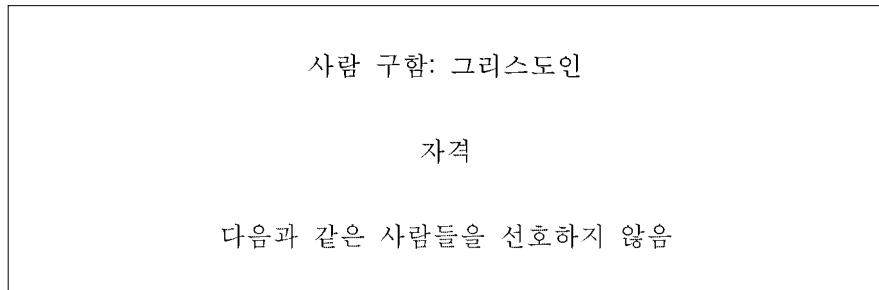
손은 직장에서 문제가 많았고, 결혼 생활은 빼거덕거리기 시작했으며, 그의 딸은 집을 나가버렸

다. 손의 친구 체드는 손을 꽤 오랜기간 알고 지냈는데, 그들은 전에 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손이 자신의 답답한 문제와 삶을 친구에게 나누었을 때, 체드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해답이야”라고 말했다.

반원들에게 체드의 단순한 대답에 손과 그 친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물어보라. (분노, 불신, 기쁨, 회의, 안도감 등등) 오늘 공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복음이 단순해 보이고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 학습 인도

- 고린도전서 1:18절을 읽어 달라고 부탁하라. 예기에 강조된 “말씀”은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반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다툼이 다른 지도자보다 한 지도자를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일어났음을 상기시키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관심을 부적절한 초점인 메신저에서 적절한 초점인 메시지, 즉 복음으로 옮기고자 한다.

-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받아드리지 않음을 주목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왜 전능의 하나님은 외아들을 보내 사람들을 위해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본문 1:18의 관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보라. 더 자료가 필요하면 교사용 교재 “성경 해석”을 참고하라.

- 수업에 앞서,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잘 만들어진 구인광고를 찾으라. 직업 목록에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이 꼭 있어야 한다. 수업에 앞서, 복사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철판에 구인광고의 정보를 적어보라. “사람 구함, 그리스도인”. 몇 줄 더 적을 수 있도록 빈칸을 남겨 두라.

먼저 반원들과 함께 잡지에 나오는 정보들을 나누라.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대한 다른 자격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고 제안하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구원을 위해서 무슨 “자격”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혹은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부적절한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두 그룹 혹은 세 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에게 1:19-21을 읽고 “다음과 같은 사람을 선호하지 않음”란 밑에 쓸 내용을 찾아보게 하라. 필요하면 학생용 교재의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몇 분이 지난 다음 구두로 답변 하게 하라. (가능한 대답들: 지혜로울 것, 교사나 철학자가 되어야 할 것,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것 등)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 주어진 지혜로 구원을 찾으려는 노력과, 십자

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6. 본문 1:22-25을 소리내어 읽으라.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반응했는지 주목하라. 아래의 질문을 사용하여 토론을 인도하라.

-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꺼리끼는 것”이 되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무기력한 메시아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 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했을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의 이 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원들에게 본문 1:22-25 내용 중 “구인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을지 물어 보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 사람” 밑에 적을 것이 있는가? (1:22 “표적”)

7. 반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도로 선택하실만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 생각해 보게 하라. 한 사람에게 1:25-31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본문에서는 “구인 광고” 항목에 적을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자격” 밑에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꺼이 신뢰하려는 사람, 특별히 구원을 베풀기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 “선호하지 않는 사람” 밑에 – 영향력 있고, 가문 좋은 사람)

8. 본문 1:30에 대한 교사용 교재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개념에 대해 토론하라.

“의로움”, “거룩함”, “구속”

9. 한 사람에게 본문 1:31-2:2을 읽게 하라.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적용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 해 보게 하라.

-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문제로 생겨난 교회 안의 다툼에 대해 이 구절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바울이 고린도교회가 초점 맞추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바울은 자신의 간증 가운데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교사용 교재의 자료를 사용하여 더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라.

## 적용 격려

10. 세상의 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토의해 보라.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하라. 이 본문은 교육이 쓸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당시 바울은 매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반원들에 게 상기시키라.

11. 십자가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요약하게 하라. 이번과의 주제와 관련하여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행한 일을 인해 자랑할 수 없다.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가사 전체를 함께 읽음으로 공부를 마무리 한다.

<b>[제 3 과]</b>	<h2>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길</h2> <p>(인도자 지침서)</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p> <p>고린도전서 2:14-3:16</p>	<p><b>학습 주제</b></p> <p>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것과 순종하려는 태도, 자신과 자신의 성취에 대해 겸손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과 조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드러난다. .</p> <p><b>탐구 질문</b></p> <p>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p> <p><b>교육 목표</b></p> <p>내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평가해 본다.</p>

### 성경주제

#### **배경 이해**

바울은 은사를 갖춘 설교자와 교사들의 사역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사람(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와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지어져가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다. 또한 이런 사역에는 엄청난 책임감도 함께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숙이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성숙의 표시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본문해석**

#####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2:14-16)**

2:14. 성경번역자들은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프시코스)을 비교할 때 쓰여진 말을 번역하는데 아주 곤란을 겪는다. “자연인”(NASV) 그리고 “非영적인”(NRSV) 이란 말이 NIV에 쓰인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란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기술적으로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soulish”라는 말인데 이는 영어에 없는 말이다. 비록 번역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오히려 분명하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언 듯 보기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어보인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12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은사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오직 성령만이 그 은사들이 지닌 의미를 이해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15. “심판”이라는 겸종하고 조사한다는 뜻도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하고 살펴보게 하신다. 예를 들면 어떤 가르침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 바울이 영적인 사람(프뉴마티코스)은 “아무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에서 언급한 겸종과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의 글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에 관하여 평가하고 겸종하는 말들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적인 사람은 잘못된 혹은 그릇된 기준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2:16. 바울은 이사야 40:13을 인용하면서 그가 주의 마음을 알게되었다고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각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훈련되고 성령충만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 교회 안에서의 분란 (3:1-4)

3:1.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1:2,30)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라는 말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함이었다. 그들은 ‘세상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었다.

3:1. 바울은 영적 성숙을 묘사하기 위해 세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유아기로부터 성년에 이르는 인간의 발달과정(3:1-4), 밭에서 자라는 식물(3:5-8), 그리고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3:9). 그리스도안에서 갓난아기 상태인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기초적인 교리들만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 비극적인 것은 바울이 떠난 몇 년간 그들이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3:3. 바울은 영적인 미성숙을 “세상적인” 것과 동일시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이면서도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사람처럼 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곁으로 나타난 모양새에 있어서는 세상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3:4. 그리이스/로마 사회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어느 유명한 학자/교사 편에 서 있음을 밝혔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를 따르는지, 혹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를 밝히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습관을 따른 것이었다.

###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3:5-16)

3:5.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를 얻으려 애쓴 적이 없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돋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 두 사도 모두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했었다. 바울은 언제나 섬기는 지도자상을 쫓고자 노력했었다.

3:6. 바울은 교회 개척에 은사를 가졌었고, 아볼로는 이미 시작된 교회를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 이 두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사역 이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식물이 자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 사람이 씨를 심었고, 다른 사람이 물을 주고 잘 가꾸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자나개 할 수는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3:7. 하나님께서 식물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이신 만큼 하나님 한분께만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 과정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바울은 항상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자신이 전파하는 그리스도께 돌리고자 애썼다.

3:8. 비록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 역할은 다를 수 있으나 다 한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곡식을 추수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역은 다양할지 모르나 목표는 한 가지로 드러난다.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더 고상하거나 우월하지 않다.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감이다. 바울은 이제 농부의 비유에서 건축가의 비유로 옮겨간다. 고린도가 매우 큰 도시였으며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도 이런 건축에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3:10. 건축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은 건축 중에 혹은 후에라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기초에 관하여는 사정이 다르다. 기초를 다시 고치려면 건축의 전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초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그 위에 세워진 구조물은 가시적인 것이다. 종종 건물의 품격이 보이는 부분에 의해서 평가받는다. 그리하여 구조물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집중해서 집을 짓으라고 권하고 있다.

3:11.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기초로 닦아 놓았다. 다른 아무 기초도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그 어떤 다른 기초도 닦아서는 않된다.

3:12. 건축에 사용된 재료는 그 건물이 얼마나 오래 보존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매력적인 외양을 갖게 될지 결정한다. 바울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항구성이나 매력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바울이 교회를 짓는데 사용될 재료로 금이나 은, 나무나 짚을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영적인 가르침과 사역의 질에 대한 문제였다. 어떤 가르침들은 금과 같이 매우 귀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지푸라기처럼 실체적으로 쓸모없는 것들이다.

3:13-14. 바울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들의 좋고 나쁨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어떤 시험들은 믿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시험은 주님의 날, 심

판 날 주어질 것이다. 이 주의 날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일반적으로 불과 관련되어 있다.(마7:19, 벤전 1:7)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은 보상을 누릴 것이고, 부실하게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상과 벌을 언급하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3:15.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곁만 번지르르한 신자에게 일련의 형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러한 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펼쩍 뛰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너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fellowship)를 세워 가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스스로 만들거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시고 거하신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각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목록이 있는 카드 혹은 종이를 나눠 주라.: 성경을 아는 지식; 겸손; 인상적인 간증; 교회 사역자로 섬김; 불우한 사람들을 향한 봉사.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표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음 중요한 것 등으로 서열을 매겨 보라. 반원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다른 특징들을 새로 적을 수도 있음을 말해 주라. 반원들이 이렇게 하기를 마쳤을 때, 무슨 항목을 반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았는지 철판에 서열대로 기록해 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성숙함이 어떻게 비쳐 지는지에 대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이다.

### 학습인도

2. 반원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다툼이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음을 상기 시키라. 다음의 고린도전서의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하라. 1:11-12; 3:21-23; 4:6-7; 3:3. 시기심, 자랑, 다툼은 고린도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였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도 된다.

3.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주로 무엇인가? (대답은 부와 지위 등일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4.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용어는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육적인 기준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울이 사용한다. 2:14-16을 소리내어 읽으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육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인도하라. 사실 새로 갓난아이들 즉, 손자, 아들, 그리고 조카로 얻게된 사람이 있다면 직접 물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갓난아이 같다!” 혹은 “어린아이 같은 짓 그만해”라는 말을 들을 때 싫어하는가?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싫어하는 것일까?

6. 반원 중의 한 사람에게 3:1-4를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하라. 바울에 따르면, 형제들의 어떤 행동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상태로 만들었는지 질문해 보라.(3:3)

7.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라. 첫째 그룹은 “농사”에 대한 3:5-8을 공부하고, 두 번째 그룹은 3:9-10의 “건축물”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라. 그런 후 다음의 질문에 각 그룹별로 대답하게 하라: 우리 그룹이 이 구절들로부터 배운 것은

- 우리의 역할
- 하나님의 역할
- 선한 사역의 증거

각 그룹이 본문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 각 그룹이 그들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대로 토의를 진행하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학생용 교재의 “식물과 건물, 일반적으로 섞여진 비유”를 읽으라.

8. 3:12-15에 나오는 건축 재료에 초점을 맞추라. 다음의 질문을 토론인도를 위해 사용하라.

- 본문 12절에 따르면, 무슨 건축 재료가 불에 가장 오래 견딜 수 있을까?
-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이 이런 강한 재료들과 같이 오래 남을 수 있을까?

9. 본문 3:16-17을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하라. 이 구절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건물로 비유하는 3:9와 비교하여 보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다툼과 싸움으로 교회를 망하게 했을 경우,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 강한 재료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 적용 격려

10. “골치 아픈 것들: 문제들과 해결책”이라고 칠판에 기록하라. 다음에 나오는 사례연구를 다 읽은 다음에 반원들로 하여금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도록 인도하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해결책을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하라.

- 당신의 교회 목회자 중 한 사람은 교단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역자 다른 사역자들을 자주 혐담한다.
- 당신이 알고 있는 새신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남자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 주일날 성경공부 시간에 당신의 반이 성경을 공부하기보다는 잡담과 광고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다.

11. 반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성숙이나 미성숙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하도록 초대하라.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하라.

-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미성숙했음에 대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는가?

조용히 기도한 후에 3:9절을 읽음으로 마무리하라.

<b>[제 4 과]</b>	<h1 style="margin: 0;">섬기는 지도력 연습</h1> <p style="margin: 0;"><b>(인도자 지침서)</b></p>
<p style="margin: 0;"><b>핵심본문</b></p> <p style="margin: 0;">고린도전서 4:1-14</p>	<p><b>학습 주제</b></p> <p>교회의 사역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 겹손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할 때 성장할 수 있다.</p> <p><b>탐구 질문</b></p> <p>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p> <p><b>교육 목표</b></p> <p>성도와 교회지도자의 올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다.</p>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분의 “동역자”로(고전 3:9) 사용하신다. 문제는 일부 고린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지혜와 힘을 지도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번 과의 배경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은 종의 역할임을 그는 강조한다. 또한 그는 사역자와 성도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고린도 성도들은 명백하게 이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기독교는 이제 겨우 시작한 종교였고, 고린도 교회는 이보다도 더 어린 교회였다. 사람들은 이제 겨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임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번과의 가르침은 1세기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오늘날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열 듯 보기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섬기는 지도력과 제자도를 배워 가는데 매우 느렸던 것 같다. 그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시대에 있어 다툼과 분열은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재앙이다. 이런 분란의 문제의 대부분은 잘못된 교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된 목회자, 성도의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 본문해석

#### 섬기는 지도자 (4:1-5)

4:1.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설교자/교사를 지나치게 따랐었고, 이것이 교회 분란의 주된 이유 중

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지도자의 참된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그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청지기 혹은 종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후페레테스)라는 헬라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는데 때로는 힘든 노동일을 표현하는 데 쓰인다. “청지기”(오이코노무스)라는 헬라어는 다른 사람의 큰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오이코노무스”의 직책은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였으나 대개의 경우 주인의 노예들이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예)”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비”(NASB)로도 번역되는데, 이는 복음을 가리킨다.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영어에서 말하는 “미스터리” 즉 이해하기 힘들거나 풀기 어려운 퍼즐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는 수용하기 힘들만큼 큰 비밀을 가리킨다.

4:2.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질은 바로 충성됨과 신실함이다. 주인들은 종종 청지기를 잘 감독하지 않은 채 청지기에게 전 재산을 돌보도록 맡기는 경우가 있다. 불성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청지기는 존재가치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복음을 맡은 이들도 주인의 신뢰에 맡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청지기”와 “종”을 판단할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아무 개인이나 그룹도 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일의 효율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 “판단”으로 번역된 말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앞서 있을 주님의 평가 혹은 점검과 가깝다.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취한 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평가하는 일은 심판하실 하나님께 남겨 두고자 했다.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에 따라 서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바울은 지적한다.

4:4. 바울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내 양심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결점이 전혀 없거나 죄가 없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그는 자주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과 복음의 청지기의 직분을 다함에 있어서 주님께 대한 충성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적하였듯이, 마지막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께서라는 사실로 인해 그가 자신의 부족을 자각 여부는 별로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4:5.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평가하는 일을 종단해야만 한다. 오직 “주께서 오실 때”만이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다. 또한 주님의 판단만이 적절한 것이다. 그 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 사역자가 더 훌륭한지, 어느 사역자를 더 따라야 할지 등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 결손해야 하는 이유(4:6-7)

4:6.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그의 사랑과 친밀함을 강조한다. 그는 아볼로와 자신을 실례로 들어 설교자/교사가 어떠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구절은 성경학자들에게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아마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청지기와 종의 이상에서 떠나지 말 것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고린도교인들이 설교자/교사를 종과 청지기처럼 여겼다면, 그들은 이제 한 지도자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4:7. 이 구절은 고린도에서 명성과 지지자를 얻고자 했던 설교자나 교사를 위해 기록된 것 같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나 혹 아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어떤 은사나 재능을 가졌건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반드시 겸손해야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을 존경하지 않거나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바울의 요지는 지도자들은 겸손한 종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처럼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선교사와 고린도교인들 비교하기 (4:8-14)

4:8.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함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한다. 바울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문학적 기교들을 동원한다. 여기서 그는 명확한 비교를 위해 아이러니와 빙정거리는 두의 말을 사용한다. 이런 분란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았다. 이런 태도는 아마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 설교자/교사들 간에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4:9. 그 다음에 바울은 사도와 전도자들의 곤궁한 상태를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비교한다. 이것은 바울의 고달픈 상황에 대한 자기 연민이 아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의 풍족한 현실을 부러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를 연고로 모든 것을 참으며, 복음을 위해 어디든 가려는 참으로 섬기는 지도자 상으로서 사도의 삶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꽉 익숙했을 비유들을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로마의 군대가 적들과 싸워 이기고 포로들을 이끌고 행진하여 주요 도시, 대개는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행진의 마지막에 이 포로들은 죽였는데, 더러는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되기도 했다. 포로들을 공개 처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조롱할 수 있는 구경거리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 즉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4:10. 이 구절에서 바울은 아이러니를 다시 사용한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고리도인, 대부분의 경우 고린도인 설교자/교사들은 그들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로 생각했었다. 여기서 바울이 분명하게 대조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다.: “연약함”과 “강함”, “존귀함”과 “비천함”.

4:11. 바울은 사도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과거의 경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바로 이 시간까지”

4:12. 헬라인들은 단순 육체 노동을 자신들의 일이 아닌 저급한 일로 취급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사도들의 섬기는 역할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사역했다.(행 18:3을 보라). 더 나아가 사도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 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인내로 받아드렸다. 세상적인 헬라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연약함의 증거 혹은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폄하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 바울은 헬라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상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4:13. 세상이 사도들을 아무데도 쓸모 없는 “인간 쓰레기” “찌꺼기”처럼 비참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

4:14.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다. 그들은 많은 “스승” 혹은 인도자(4:15)를 두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오직 한 “아비”를 두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한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은 그들의 “아비”였다. 좋은 아버지처럼, 그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이 성숙하도록 돋고자 했다. 그의 말들은 일종의 경고였다. 무엇에 대한 경고인가? 그것은 고린도교인들이 그들의 설교자/교사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경고였다.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분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문장을 완성시킬 자원자를 찾아 보라: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를 생각할 때면, 나는 \_\_\_\_\_를 생각한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두 번째 빈칸은 그 지도자의 행동 혹은 특징을 적을 수 있다. 여러 명이 발표한 후에, 칠판에 지도자들의 특징 혹은 행동을 나열하여 보라.
2. 반원들에게 “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하는가”에 대해 물어 보라. (다양한 대답이 나오도록 격려해 주라.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좋아한다; 어떤 이들은 유명해지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성취감을 느낀다; 어떤 이들은 이기적인 이유를 갖고 있다.)
3. 오늘 공부할 고린도전서 4장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라.

### 학습 인도

4. 반원들에게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포함한 각기 다른 지도자들을 향한 충성심에서 시작된 다툼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라.
5. 한 사람을 시켜서 4:1-2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그런 다음에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 바울이 지도자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 지도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들 즉 “종”, “청지기”, 그리고 “충성스러움”은 일상세계의 지도자에게는 어느 정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세상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도자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반원들에게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회상해 보라고 하라.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세상의 지도자 모델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라.(구체적인 이름을 피하라.)

6. 질문하라. 어떤 사람이 오늘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대답은 다양할 수 있다. 피고, 변호사, 검사, 배심원, 청중, 판사)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가? (배심원, 판사)

7. 한 사람을 지정해 4:3-5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라. 다음의 질문을 하라.

-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누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가?
- 이 구절은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전혀 평가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
-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 5절에 따르면, 장차 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가?

8. 4:4에 집중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것임을 주목하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그를 온전히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내가 내 자신의 유일한 재판관이 될 때 무슨 위험이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할까 아니면 지나치게 혹독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치중해서 행동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9. 반원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4:6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라. 바울이 다시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고린도교인들의 다툼은 자랑과 교만으로 뭉쳐진 것이었다. 반원들이 고린도교인들이 반드시 가졌어야 할 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4:7-8을 소리내어 읽도록 부탁하라. 다음과 같이 물으라. 고린도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해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들이 있었는가? 그들의 좋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 주의하라. 때문에 그들은 겸손해야 했었다.

10. 바울의 고난과 관련된 구절들을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보게 하라. 사도행전 9:15-16; 14:19-22. 반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바울이라고 상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다고 생각해 보게 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당신이 바울이라면 어느 지도자가 더 큰 지에 대해 분란에 휩싸인 교인들과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찬 성도들에게 어떤 감정이 있겠는가?

11. 고린도전서 4:9-11을 소리내어 읽게 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바울의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 (가능한 대답은 좌절, 의로운 분노, 비웃음, 낙심...등이다.)

## 적용 격려

12. 반의 규모에 따라 3-4명씩 한 조가 되도록 그룹을 나누어 보라. 각 그룹들이 4:1-14을 간략히 읽고, 바울의 자신에 대한 설명에 따라 교회 지도자의 해야 할 일에 대해 적어 보라. 이 반응들을 들어본 후에 반원들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 보라. 바울이 기록한 대로의 일이 교회 지도자의 일이라면 누가 교회 지도자로 지원할 것 같은가?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13. 반원들로 하여금 학생용 공과에 있는 작은 기사 “얼마만큼의 ‘내 자산’을 내어놓겠는가?”를 읽어보게 하라. 첫 번째 두 질문을 대한 대답을 각각 발표하게 하고, 마지막 질문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하라.

<b>[제 5 과]</b>  <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5:1-11; 6:9-20	<h2 style="text-align: center;">부도덕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삶</h2> <p style="text-align: center;"><b>(학습공과)</b></p> <p><b>학습 주제</b>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p> <p><b>탐구 질문</b>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는 것이 무슨 문제란 말인가?</p> <p><b>학습 목표</b>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 해보라. 그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p>
--	--

## 성경주제

### **배경 이해**

고린도전서는 한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가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더 나아가, 이 편지는 그 교회의 특별한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편지가 1세기 교회의 한 단면을 엿보는 것 외에 무슨 쓸모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사실 이 편지의 가르침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배경은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고대 고린도이다.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 도시에 넘쳐났다. 성적 부도덕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한 이단이 생겨 나와 이러한 부도덕한 습관들에서 절제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도덕폐기론자들이 바로 그런 이단이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잘못 가르쳤다.

### **본문해석**

#### **교회의 부도덕한 사람들을 청결케 함 (5:1\*5)**

5:1. 자신의 계모와 결혼하는 것은 구약성경(레위기 18:8) 뿐만 아니라 로마법도 금하는 것이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 가운데서도 이런 행습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5:2. 바울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바울이 그 여인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교회는 교만하고 오만하였다.

5:3. 지역 교회의 자율성과 회중 정치의 존재 여부가 이 구절에서 드러난다.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은 더러운 죄에 빠져 있다고 정죄했으며,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 회중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였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바울의 권면과는 달리 그 사람을 교회 안에 머물도록 결정 할 수도 있었다.

5:4. 비록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들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울은 그 사람이 교회 회중 가운데서 떠나야함을 주장한다. 바울이 말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아마도 바울은 이 사람을 교회 회중 가운데 제외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죄를 향해 고삐 풀린 그 사람의 종말은 결국 죽음이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사람을 교회로부터 쫓아냄으로써, 그는 육체적 죽음 가운데 내어준바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는 소망이 있다. 그리하여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구속적인 것이다.

### 교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 (5:6-11)

5:6. 교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바울에게 결코 주변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덕적인 정결함 역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죄가 암시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계모와 결혼한 부도덕한 사람을 향한 무관심이다. 이런 무관심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전체 교회에 고루 퍼져 있었다. 바울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경험 -빵을 굽는 것-을 사용하여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려 한다.

5:7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권하여 옛 생활 방식 가운데 있던 죄를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한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유대의 유월절 식사를 암시한다. 이 축제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익숙했을지 몰라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유월절 즈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유월절 기간 동안 어린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5:8. 바울이 “명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유월절을 지켜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유월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설명을 돋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명절은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실을 기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기쁨은 악하고 교활한 죄의 옛 습성을 버리고 성실과 진리의 새 삶으로 우리를 불러낸다. 바울은 청결한 교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오직 그러한 교회만이 깨끗하지 못한 세상에서 변화시킬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5:9-10.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편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지난번에 부도덕한 사람들과 연합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전혀 접촉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충고를 무시했었다. 바

울은 그의 권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신은 부도덕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함을 잘 알고 있으며, 아니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야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5:11. 바울이 권면하고자 한 바는, 교회 성도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교회 회중 가운데로 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열거된 죄들은 낱낱이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용납될 수 없는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자 함이다.

###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라 (6:9-20)

6:9-10. 바울은 교회의 청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청결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여기에서 그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정죄하면서 동일하게 높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영적 진리에 대한 높은 철학적 이성적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6:9) 다시 그는 부도덕한 삶의 예를 들고 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등 앞의 5:9-10의 내용을 다시 말한다. 위에서 말한 죄들은 당시 고린도에서 가장 보편적인 죄들이었다.

6:11. 바울은 그런 악행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행위로, 즉 청결한 도덕적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전에 이런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의 회원이 되어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그 혹는 그녀의 삶의 질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씻음”,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이런 일들이 그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씻음”은 계시록 7:14에 기록된 씻음,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거룩케 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말한다. “의롭다 하심”은 기소된 사람에게 사용되는 법정 용어로서 여기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드려지고, 그들의 죄가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6:12.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어떤 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은 나쁜 습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덕폐기론이 득세하는 교회 성도는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자유하고 어떤 법, 교제, 혹은 제한의 속박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에 대한 그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르칠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연고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부도덕으로 이어진다고 의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6:13-14. “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도덕폐기론자 혹은 타락한 고린도인들이 자신들의 행동 즉,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창기와 연합하는 것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는 말처럼 보인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배와 음식이 먹음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몸과 참기는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먹는 것과 성 관계는 깊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논박한다. 하나님께서 배와 음식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러나 몸은 하나님께

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은 성적 부도덕을 위해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

6:15.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 창기와 성적으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과 창기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옳으냐?고 묻는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6:16.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은 성관계를 갖음으로 창기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선언한다. 그의 주장은 창세기 2:24에 근거를 두고 있다.

6:17. 창기와 연합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되어야 한다. 고린도에는 천여 명의 신전 창기들이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로 섬기면서 여신을 섬기려 찾아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신전 창기와 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부도덕한 것일 뿐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동시에 범하는 것이었다.

6:18. 고린도에서의 성적 범죄는 일반적인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해 지적한다. 바울은 성적인 범죄를 그들과 직접 관련 있는 죄로 취급한다. 비록 성적인 범죄가 가장 악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과 몸의 관계가 특수한 관계임을 밝힌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잘못된 성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이 다른 몸과 연합하기 때문이다.

6:19-20. 바울은 이제 몸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옮겨간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6:20). 왜 그래야 하나?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6:19)이며 성전은 반드시 존경을 갖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 주고 산 바”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6:20) 물론, 그 값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말한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몇 주간의 공부를 연결하여 보기 위해 학생용 교재의 2 단원의 서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과의 제목을 읽어보고, 몇몇 사람에게 학생용 교재에 나오는 각 과별 주제를 읽도록 한다. 연결되는 과정 전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관성있는 공부임을 지적한다.

2.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죄의 문제가 공론화 될 때, 바울이 제안한 “문제 해결책”에 집중하여 보라. 포스터에 “죄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라는 챕트를 만들어 게시하라.

이 챕트는 반원들로 하여금 핵심적인 문제를 이해하도록 돋는다. 각 사람이 다 성경을 찾아보기 전까지 “해결책”이라는 난 밑에 아무 것도 기록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반원들로 하여금 바울의

해결책에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라. (가능한 답들은 다음과 같다. 교회- 물리치다,

죄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본체	성경본문	해결책
교회	5:1-11	
개인	6:9-20	

구별하다, 제거하다, 등 개인-피하라, 떠나라, 회개하라 등)

## 학습 인도

3. 5:1-5을 읽기 전에 반원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게 하라.

- 부도덕한 교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들. (5:4을 보라. 그리고 학생공과의 기사 “특급 우편”을 보라)
- 판단 받는 자에 대한 바울의 궁극적 목표(5:5을 보라)

반원들이 간략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더 자세한 내용은 교사용 교재의 “성경 해석하기”를 참조하라.

4. 반원들로 하여금 5:6-11을 읽고 바울의 언급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신자들 혹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태도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각각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더 깊이 논의하고 싶다면 다음의 질문을 하라.

-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 (가능한 대답들: 교회 규모, 예산, 음악, 프로그램 등)
- 우리가 교회를 자랑함으로써 겪게 되는 영적인 대가는 무엇인가? (가능한 답: 교만, 우리의 문제를 덮어버림, 죄에 대해 부드러워진 태도. 등)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굳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딘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속담이 아마도 진실을 담고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라.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사용 교재에서 5:6-9에 대한 “성경 해석하기”를 참고하라.

5. 5:10-11을 소리내어 읽어 보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바울은 회개하지 않은 교회 안의 성도가 믿지 않은 올바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더 설명이 필요하면 학생용 교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실제적 제안들”이라는 기사를 참고하라. 이 토론에 이어서 “죄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으로 연결시키라. 교회란의 해결책을 적어 보라. 이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토론했던 점들을 요약하고 개인적인 죄의 문제 해결로 전환하도록 돋는다.

6. 본문 6:9-20은 바울이 교회의 문제들에서 개인의 죄의 문제로 초점을 옮겨오는 구절들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라.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중요한 부분이다. 반원들에게 최근 뉴스 가운데 본문 6:9-11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물어보라. 본문 6:9-11을 소리내어 읽으라. 반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의 전달 방식에 대해 회상해 보라고 하라. 이런 연습을 위해 2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라.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바울의 이런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7. 반원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유혹이 되는 활동이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해보라. (가능한 대답들: 텔레비전, 영화, 포르노그래피, 물질주의, 탐심, 위선, 사회적 지위, 등) 다음의 질문들로 계속 이어가라: 위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시도했거나, 관찰했거나, 들어본 것이 있으면 말해보자. (가능한 대답들: 성경공부, 예배, 그리스도인의 교제, 상담, 기독교 라디오 등) 이러한 구절들을 반원들이 적용하는 것을 도우려면, 세상의 부도덕한 상태보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추라. 더 설명이 필요하면 교사용 교재의 “성경 해석하기”를 참고하라.

### 적용 격려

8. 학생용 교재의 질문들을 언급하면서 각각 간략한 토론을 격려하라.

9. 7 단계에서 반원들이 나누었던 긍정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라. 반원들에게 다음 주를 살아가면서 한가지 이상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격려하라.

<b>[제 6 과]</b>	<h1>결혼 -선? 독신 - 선?</h1> <p>(인도자 지침서)</p>
<p style="text-align: right;"><b>핵심본문</b></p> <p>고린도전서 7:1-17, 25-35</p>	<p><b>학습 주제</b></p> <p>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야 한다.</p> <p><b>탐구 질문</b></p> <p>어떻게 독신과 결혼한 사람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p> <p><b>교육 목표</b></p> <p>독신과 결혼생활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p>

## 성경주제

### **배경이해**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금욕주의자들은 성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육체적 희락을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했으며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했다. 그러한 견해는 당연히 문제를 야기시켰다.

### **본문해석(8:1-13)**

#### **결혼에 관한 조언(7:1-9)**

7:1. 금욕주의적 견해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거나 혹은 이교도 철학자들의 그러한 견해가 결혼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열등한 느낌을 갖게 했을 수 있다. 앞에 나온 내용에서 언급하겠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지만 독신이 결코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7:2. 바울은 여기서 결혼에 대해 다소 낮게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기억하라. 바울은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특별한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서신서들에서 바울은 결혼을 더욱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7:3. "의무를 다하고"는 명령형으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으로서 충실한 책임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결혼의 고귀한 가치를 망각한 자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7:4. 바울은 계속해서 남편과 부인 사이사이의 성생활에 대해 말한다. 바울은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요 아내도 남편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7:5. 부부가 분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분방해야 된다는 것이나 기도하는 동안은 절대로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7:6-7. 사도 바울은 이것은 결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한다. 하지만 그는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7:8-9. 바울은 이제 독신들을 향해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도 독신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를 말하지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해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

### 이혼에 대한 상담(7:10-17)

7:10-11. 의심할 것도 없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 결혼한 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명령은 서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으로서(마 19:4-9)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12-15.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 그가 당시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음란한 성적 방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피차 '버리지 말라' 명령한다.

그러나 이교도 배우자에 대한 이혼 문제는 앞의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혼 문제는 이교도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데 만약 그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좋아하면' ale는 배우자는 능동적인 자세로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기꺼이 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5절). 따라서 본질의 전체적인 의미는 믿는 배우자들에게 소극적(消極的)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불신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7:16. 분명히 고린도에 있는 몇몇 교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리자고 해도 이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반박하여 아내나 혹은 남편이 자신의 배우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7:17.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과 소명은 그것이 종교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것인가 간에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 결혼에 대한 반대와 찬성, 그리고 독신(7:25-35)

7:25.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킨다.

7:26. 결혼에 관한 바울의 상담은 7:17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향하고 있다. 무엇이 "임박한 환난"일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오는 환란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임할 박해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으리라.

7:27-28.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생활을 지키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비교적 독신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당하게 될 육체의 고난을 상기하며 결혼으로 인하여 가중될 책임과 고난으로부터 보호되길 기대한다.

7:29-31. 바울은 독신을 권하는 이유를 다듬고 있다.

7:32-34. 현대 신학자들은 바울의 독신을 권하는 이 구절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실재적으로 "임박한 환난"(7:25)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환경이 적용되는 때와 장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적합할 것이다.

7:35. 바울의 의도는 보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질서 속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바울이 의도한 목적이 있었다. 즉 (1) 고린도 교인들의 신실한 신앙과 빛된 생활을 촉구하고 (2)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완전한 헌신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3) 구차한 논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반원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계수하라.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몇 가지 반응을 들어보되, 바로 오늘 수업의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

#### 학습인도

2. 오늘 수업 내용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임을 반원들에게 상기시켜라. 학습 주제와 제목을 언급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5과 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라. 바울이 에베소(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 있는 몇 명의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또 그들이 편지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과 조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

오늘 수업은 바울이 그들이 질문했던 몇 가지 내용들 중 가장 첫 번째로 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라.

3.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반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음을 언급하라. 반원들에게 학습공과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살피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간파하도록 하라. 첫 째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닥쳐올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르침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조언이라는 것이다.

4.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면 선한 것이다.” 질문, “만일 이 것이 대답이라면 무엇이 질문일까?” 가능한 질문을 반원들이 제시하도록 이끌라(가능한 대답: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선한 것일까?”). 이 공과를 쓴 저자는 또 하나의 가능한 질문인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해서는 안되는가?”라고 묻고 있음을 언급하라. 고린도전서 7장은 그 질문들에 대한 바울 자신의

대답이라는 것을 덧 붙이라.

5. 고린도전서 7:1-9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도록 하라. 반원들의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6과의 제목을 참조하라. 먼저 질문하기를,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질문하기를 “바울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위하여 학습공과의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소제 밑에 있는 설명을 반원들이 살펴보도록 하라.

6. 다음 질문들을 반원들에게 하라: (1) “결혼한 남자는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기 위하여 아내와 이혼해야 하는가?” (2) “만일 한 여자의 남편이 그녀와 이혼하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가?” (3)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혼해야 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서신으로 바울에게 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이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다음 구절들에서 찾아볼 것이라고 반원들에게 언급하라.

7. 7:10-17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도록 하라. 오직 10절과 11절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신 말씀이며 그 외의 내용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답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또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 기도와 주의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음을 언급하라.

8. 반원 중 한 사람이 7:25-35절을 읽도록 하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바울은 세상의 일들과 문제들로 얹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자유하기를 원했다.

## 적용격려

9. 바울의 가르침이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반원들이 토론하도록 하라.

(1) 한 청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는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는 한 여인을 흡모하고 있는데 그녀는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

(2) 노년기에 막 접어든 한 남자가 아내가 죽은 후 남편이 죽은 자기 나이 또래의 한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각 함께 있었던 자신들의 배우자들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으면 편함을 느끼고 있고 서로 결혼하려고 한다.

(3) 삼십대의 한 여인이 믿지 않는 한 남자와 결혼한 상태이다. 그 남자는 이 여인에 대해 온유하며 그녀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그 밖의 교회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은 거절한다.

(4)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아내와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나 그녀가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더라도 성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b>[제 7 과]</b>	<h2 style="margin: 0;">삶의 애매한 부분과 씨름</h2> <p style="margin: 0;"><b>(인도자 지침서)</b></p>
<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8:1-13, 9:19-26; 10:14-33	<p><b>학습 주제</b>          비록 어떤 행습이 명백히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것을 삼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p> <p><b>탐구 질문</b>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애매할 때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가?</p> <p><b>교육 목표</b>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애매한 삶의 영역과 대처할 수 있는 원리들을 본문에서 발견한다.</p>

### 성경주해

#### **배경이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종교가 존재하는 거대한 도시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유대교 회당, 다양한 신전들, 그리고 이교도 신전들이 신자들을 유혹했다. 유대교는 우상을 험오했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교도 신전의 제사들은 음식이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러한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제사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종교적 제의(祭衣)에 사용된 음식물들을 사제들이 처분하였으나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물들은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제의에 사용되지 아니한 고기도 있었으므로 교인들이 거리낌없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제물과 순수한 음식을 구별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 **본문해석(8:1-13)**

#####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8:1-13)**

8:1-2.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먼저 지식의 불완전함을 증명한다. 본절에서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시사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기도 한다(요일 2:4).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호 6:3). 그러나 고린도의 지식있는 자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우(愚)를 범하였다

8:3. 지식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

8:4-6. 바울은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며 이교도들이 섬기는 모든 다른 신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8:7-9.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정도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꺼리끼는 마음으로 먹음으로써 범죄할 수 있는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죄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도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먹어서는 안된다. 사랑이 지식보다 앞서는 것이다.

8:10-11. 바울은 9절의 언급을 생생한 예화로 묘사하고 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은 믿음이 약한 신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강한 신자들을 쫓아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경

우 강한 신자들과는 달리 양심에 거리낌을 느낄 거리낌 때문이다.

8:12.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8:13. 바울은 도덕적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한다. 비록 자신이 믿기에 그것이 그리스도께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의 약한 형제 자매들이 유혹 받는 어떤 일들도 하지 마라.

###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9:19-26)

9:19.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였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언한다.

9:20. 19절의 선언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9:21. 독자들에게 도덕률 초월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음을 언급한다.

9:22-23. 바울은 원칙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 그것을 행했다. 하지만 원리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

9:24-26. 바울은 본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와 노력이 필요함을 권면하기 위하여 운동 경기(권투와 달리기)를 비유로 들었다. 운동선수는 충분히 훈련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경기를 해낼 수 있다. 훈련은 절제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운동선수가 곧 없어질 세상의 상을 위하여 훈련을 잘 견뎌낸다면 영원한 상을 받을 그리스도인은 더욱 잘 견뎌내야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10:14-33)

10:14. 죄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하여 멀리 있는 것이다. 희생 제사의 축연이 곧 우상 숭배는 아니었으나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경계선까지 가는 행위였으며 또한 충분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었다(Godet). 그러기에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10:15.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 교만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생각좀 하라고 충구한다.

10:16. 본절부터는 '주의 만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유월절에 마셔야 하는 네 잔 가운데 세 번째 잔이 '축복의 잔'이었다. '참예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 '교제'를 뜻하는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말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는다.

10:17. 주의 만찬으로부터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제사 시스템으로 화제를 돌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성전 뜰에서 나누어 먹었다(레 7 : 15).

10:19-20. 바울의 독자들은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교도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우상은 존재하는 아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10:21-22.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은 '잔'과 마찬가지로 서로 배타적이다. 그러므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고후 6:14-18).

10:23. 바울은 본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기독교인은 우상의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10:25-26.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고기도 우상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제물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우상 제물로 쓰여진 고기를 먹는다 해도 그 음식이 본래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다.

10:27-30. 그들은 상 위에 놓여진 음식은 어떤 것이든지 양심의 가책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음식이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자신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제물임을 가르쳐준 사람은 그 약한 믿음이 그 일로 인해 성처받아 실족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제물을 먹는 자에게 있다.

10:31. 원리는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10:32-33. 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요 두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다른 사람

들의 환경에 적응시켰다(9 : 18-22).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 개요 부분에 나오는 "애매한 영역"에 대한 설명을 읽거나 혹은 자신의 말로 설명하도록 한 사람을 지정해 놓으라.
2. 가게에서 고기를 살 때 이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 적이 있는지 반원들에게 물어보라. 미국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롭지만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음을 언급하라.

### 학습인도

2.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해 두 사람을 뽑아라. 한 사람에게는 8:1-6절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7-13절을 읽게 하라. 다음 질문을 통해 8장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라.
  - (1) 사람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2) 사람을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 (3)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고 거짓 신들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 (4) 바울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될 때는 언제인가?

대답들: (a) 지식, 1절 (b) 사랑, 1, 3절 (c)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d) 다른 그리스도인 동료를 죄에 빠지게 할 때 7-13절

3. 첫 번째 본문(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가 될 정도로 자신의 믿음의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언급하라. 9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포기했던 것 권리와 자유들의 네 가지 예들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설명하라. 그 두 가지는(핵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음) (1) 아내를 가질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 (2)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본문을 통해 나머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고전 9:19-26절을 읽고 다음을 가르치라; (3)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이하게 전파하기 위해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종이 되었다(19-23). (4) 싸우기 힘든 막중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는 절제와 인내를 했다(24-26).

4. 당신이 9:19-26절 말씀을 읽을 때 반원들이 성경을 보면서 당신을 따라 오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학습공과에 나오는 "자유인이 종이 되다"의 내용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반원들이 질문 할 수 있도록 고무하고 설명을 간단히 하라.

5.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유일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마지막 본문에서(10:14-33)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을 먹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바울은 이번에는 이교도의 축제기간에 나오는 고기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불신자가 그러한 음식을 차려놓고 당신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음을 언급하라.

6. 반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 다음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룹 1. 고전 10:14-22절을 읽고 학습공과에 나오는 "이교도 축제인가 아니면 주의 만찬인가?"을 읽는다. 주의 만찬과 이교도 축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이교도 축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룹 2. 고전 10:23-33절을 읽고 학습공과의 "불신자의 식사초대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부분을 읽는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약 10분정도의 시간을 준 뒤, 각 그룹이 내준 과제물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 적용격려

7.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의 시대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님을 언급하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은 애매한 영역들이 있음을 지적하라. 오늘날 우리가 부딪치는 이러한 "애매한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라. 학습공과 개요부분에서 나왔던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예를 생각해보라. 반원들이 그러한 애매한 영역들을 말해볼 수 있도록 하라; 마귀적인 음악을 듣는 것, 흡연, 폭력물이나 애로물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는 일, 장 보는 일, 주일에 외식을 하거나 일을 하는 문제, 복권을 사는 일, 춤 추는 일, 카드 게임을 하는 일, 경마 도박, 문신 새기는 일, 코, 입술, 혹은 몸의 일부에 링을 걸고 다니는 일,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일 등 많이 있을 것이다.

8.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지 규칙은 고린도 전서 10:31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 8 과]	<h1>우리의 예배</h1> <h2>(인도자 지침서)</h2>
<p><b>핵심본문</b> 고린도전서 11:2-16</p>	<p><b>학습 주제</b> 남자와 여자가 예배 가운데 행동하는 양식은 그들의 문화에 덕을 끼쳐야 한다.</p> <p><b>탐구 질문</b>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에 가장 좋은 덕을 끼칠 수 있을까?</p> <p><b>학습 목표</b> 예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참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p>

성경주해

## 배경이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기만 해도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고린도 교회는 주변의 세속 문화로 인해 많은 종교적, 도덕적, 인간 관계적인 문제들을 앓고 있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여인의 지위와 행동이 먼저 토론된다. 고대 세계에서 여인은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었다. 그들은 소유물로 취급 받았고, 먼저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의 보호아래 살아야 했으며 혹은 심한 경우에는 창녀가 되어서 남자를 섭겨야 했다. 여자들을 위한 공적인 아무런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인생 가운데 남자들의 자비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오늘날 서구문화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때나 혹은 일상 생활에서도 베일을 거의 쓰지 않는다. 하지만 중동지역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여인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머리와 얼굴마저 가린다.

머리 스타일 역시 성서시대와 연관된 하나의 문화요 풍습이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구약에서 삼손과 같은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현신된 기간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문화적 관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부터 남자는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고 여인들은 머리를 길게 길러야만 했다. 창녀들은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을 수 있었다. 또한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죽었을 때 애도의 표시로 머리를 짧게 깎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에게 바울은 여인들이 머리를 짧게 깎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 본문해석(11:2-16)

### 교인들을 칭찬함(11:2)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의 말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지킨 데 대해 칭찬의 말을 하여 그들로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없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학적 적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11:3)

본절에서 '머리'는 '권위'와 질서를 의미한다. 첫째 질서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인데,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한 연합에 의해서 남자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 질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데,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존재 자체의 우열이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지역적 관습을 이해하기(11:4-10)

11:4-7. 바울은 5절에서 여자가 공예배시에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를 당시 관습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다. 여자가 공예배에서 머리에 무엇 인가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민 것과 같다는 것은 당시 헬라 여인들이

나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여성다움을 표현하는 장식과 같은 것이었으며 짧은 머리나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모습은 매춘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존 관습에서 여자가 머리가 짧거나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는 경우는 매춘부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므로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거나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모두 여자의 수치였다.

11:8-10. 본절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을 통해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씀으로 자신의 순결과 사랑의 복종을 표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한다.

창 2 : 20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또한 창 2 : 18에는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되어 있다. 물론 이 말씀들은 남자에 대한 여자의 종속성(從屬性)이나 여자에 대한 남성 우위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혼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창 1 : 28). 그 주권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에 있을 때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 핵심적인 원리들(11:11-15)

11:11-12. 이제까지 바울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며, 예배시에도 순종의 베일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주 안에서 서로 하나인 것을 밝힘으로 여자의 지위에 대해 변호하고 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과정 속에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 두 존재의 기원은 결국 하나님이다(창 1, 2장).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동등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11:13-15. 긴 머리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동일시되며, 그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허락하신 권리

세이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본성이 아름답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남자와 구별된다. 또한 긴 머리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여자의 권위와 존엄성을 나타낸다.

11: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 -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기 위해서 '변론을 위한 변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하는 것은 헬라인들의 국민적 특성인 변론이 무의하며 잘못된 습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지난주에 배운 것을 점검하라. 지난주 학습 제목이었던 "삶의 애매한 부분들과 씨름"을 언급하라. 이번주에 배울 내용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치는 또 다른 애매한 부분임을 말하라. 그것은 애매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매우 논쟁이 많은 부분임을 언급하라.

2.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라. 그리고 최소한 이 주제 속에서 최소한 두 개의 과가 더 있음을 말하라. 단원 개요부분을 설명하라. 10과에서 12과는 영적 은사의 중요성과 그 사용과 관련된 논쟁적인 부분임을 설명하라.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11장 핵심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라. 마지막으로 제 13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된 희망도 모두 헛된 것임을 설명하라.

### 학습인도

3. 반원 중 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11:2절을 반원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라.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의 가르침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진실로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언급하라. 또한 그들은 대체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었음을 언급하라.

4.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도록 하라. 다음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을 유도하라, "바울이 이 구절에서 '머리'라는 단어를 통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5. 학습공과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의 내용을 참조하라. 칠판 위에 두 개의 평행선을 그려라. 평행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며 또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하라. 위에 그린 평행선 왼쪽 위에 "하나님"이라고 쓰고 오른쪽 위에는 "그리스도"라고 써라. 그리고 아래쪽 평행선 왼쪽에는 "남자/남편"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여자/아내"라고 기록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진실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남자나 여자보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여자와 남자는 모두 같은 레벨에 있다는 것을 평행선의 특징을 들어 설명하라.

6.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에 나오는 '머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라. 고대시대에 머리는 결코 사장이나 상급자와 같은 어떤 지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라. 바울은 예배에 있어서 적합한 여성의 행동지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바울은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라.

7. 고린도전서 11:4-6절을 읽기전에,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 그룹의 경청팀을 만들라.

그룹 1: 이 구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할 때를 근거한 것인가?

그룹 2: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 누가 머리를 가려야 되고 누가 머리를 가려서는 안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그룹 3: 만일 여인이 머리를 미는 것이 부끄럽게 여긴다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가?

반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도록 하라.

그룹 1: 남자와 여자가 예배 가운데 기도나 예언을 할 때

그룹 2: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하고 남자는 머리를 가려서는 안된다.

그룹 3: 반드시 머리를 가려라.

8. 4-6절에서 바울은 그 당시에 맞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라.

그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와 사람들의 관습을 존경해서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지 않게 하고 있음을 언급하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인들이 더 이상 머리에 무엇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동시에 여자나 남자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웃이나 차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라.

9. 반원 중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1:7-12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학습공과의 "남자와 여자"를 읽도록 하라.

10. 다른 사람이 고전 11:13-16절을 읽게 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을 어떤 자유의 표시나 혹은 평등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여자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설명하라. 15절에서 바울은 여인들의 긴 머리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언급하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는 여인들이 예배 중에 머리를 베일이나 스카프, 혹은 다른 무엇으로 가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 적용격려

11. 오늘 핵심 구절에서 말하는 주제를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도록 반원 중 한 두 사람에게 요청하라. 이번과의 학습주제에 맞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우라.

12. 이번과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원들에게 질문하도록 하라. 여자와 남자들이 어떻게 서로 갈등관계 없이 예배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좋은 생각들을 들어보도록 하라.

<b>[제 9 과]</b>	<h1>이것이 주의 만찬인가?</h1> <p>(인도자 지침서)</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p> <p>고린도전서 11:17-34</p>	<p><b>학습 주제</b>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고 존중함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는지를 상기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을 드려야 한다.</p> <p><b>탐구 질문</b>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하면 참된 주의 만찬이 되게 할 수 있을까?</p> <p><b>교육 목표</b>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비추어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닫는다.</p>

## 성경주해

### **배경이해**

아마도 어떤 예배의 경험도 주의 만찬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바울의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육신의 엉터리로 지키고 있었고 그 본연의 의미에서 벗어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전락할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훈화함으로써 그들이 진정 주의 만찬을 축하하고, 주의 영과 주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기회를 갖게 하고 있다.

### **본문해석**

#### **교회가 해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11:17)**

"이는 저희의 모임이...해로움이라" - 본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낸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은 편당(偏黨)을 이루어서(19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22절) 주의 만찬에 불경하게 참예하였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

#### **단지 의견차이가 아님(11:18-19)**

11:18. 본절에서의 분쟁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생겨난 대립을 가리킨다.  
 "대강 믿노니" - 바울은 들었던 분쟁에 관한 소문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소문들의 진위(眞偽)를 가려볼 때 분쟁의 사실들이 분명하기에 책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바울이 그 소문의 진위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다.

11:19.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 본절은 교회 내에 편당이 존재하는 목적을 긍정적으로 나타낸다.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와 파벌은 때때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런 위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위기의 과정

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 계층에 의한 분당은 교회 안에서 금기(11:20-21)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love-feast)과 '성만찬'(Eucharist)이 결합된 형태였던 바, 교인들은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행 2:46; 고후 8:14). 이런 애찬 후에 성만찬이 행해졌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함으로(21절) 애찬과 성만찬을 일반 식사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 주의 만찬 전에 던진 질문들(11:23)

'빈궁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의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부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고 구별지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굴욕감에 빠지게 하였다.

### 식탁의 드라마(11:23-26)

11:23-25. "떡을 가지사" - '떡'은 성만찬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 과정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였기 때문에(마 26 : 17-19 ; 놀 22:7-20) 아마도 무교병이었을 것이다(Godet, W.H.Mare).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성만찬의 의미는 '떡'이나 '포도주'가 어떤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모세의 옛 언약은 애레미야에 의하여 선포된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다(렘31 : 31-34). 예레미야는 모세의 언약을 이스라엘이 파괴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죄를 기억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임을 소개한다.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새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의 피로 맺는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단번에 이룬 새 언약임을 암시한다. 본절의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 이를 기념한다.

11:26. 본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인 죽음과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고백과 대중적인 선포는 물론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증거하고 대대로 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 주의 만찬을 의미있게(11:27-34)

11:27.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 합당치 않게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범죄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그래서 카톨릭과 루터교는 본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재적 임재를 의미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상징'에 대한 범죄는 곧 상징이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영적(靈的) 범죄이기에(Godet, Meyer) 그들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11:28. '살피고'는 예수의 인격에 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1:29-30.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인니라" -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마'는 '심판'을 의미한다(Judgment, NIV).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원한 심판을 의미할 경우에는 판사 '토'가 부가된다(Godet, Meyer). 더욱이 다음 구절들에서, 바울이 합당치 못한 성만찬의 참여에 대한 결과로서 일시적인 심판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30, 31절). 그러나 회개와 개종

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징계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전조(前兆)이다(32절).

11:31-32.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본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징계는 영원한 심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11:33-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 본절은 22절과 연관성을 지닌다. 그것은 어떠한 형편의 사람이든지 간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성만찬에 참여하려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의미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다음 장면을 반원들에게 묘사할 수 있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는 교회의 식사시간이 있다. 세 네 명의 사람들이 미리 음식들이 차려진 주변에서 먼저 먹으려고 서성거린다. 드디어 줄을 서서 음식을 떼 먹을 때 그들은 가장 맛있고 고급스런 음식으로만 자기의 접시에 가득 담아와서 먹는다. 그들은 급하게 그 음식을 다 먹고 아직 줄을 서서 음식을 뜨고 있는 사람들 뒤에 서서 한 번 더 먹으려고 한다. 맨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례가 왔을 때는 음식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반원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특별히 맨 뒷줄에 서서 음식을 기다리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었는지 질문하라. 오늘 수업을 통해 이 보다 더 심한 일이 진행 중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울 것이라고 언급하라.

### 학습인도

2. 반원 중 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11:17-22절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읽도록 하라. 읽는 사람에게 약간 화가나고 자극받은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라. 말씀을 다 읽은 뒤 반원들에게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화가 났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라. 그가 화가 난 것은 의분인가? 교회 성도들간의 교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는가?

3. 학습공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더 많은 문제들"에서 묘사되고 있는 교회에서의 분쟁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보인 예를 인용하라. 반원 중 한 사람이 그 부분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라. 그 일화에서 나오는 헌신된 그리스도인과 그 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인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 이것이 일반적인 경향인지 질문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라.

4. 학습공과 "식사교제와 주의 만찬" 부분을 반원중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이 이어지는 일반적인 정식을 먹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라. 부자들이 일찍 도착해서 배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은 다음, 고된 노역 끝에 배가 고픈 노동자들, 노예들이 왔고 그들은 먹을 음식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묘사하라. 바울은 이것이 분열 -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을 설명하라.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영으로 연합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분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음을 지적하라.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은 그들의 식사는 집에서 마친 뒤 교회에 와서 주의 만찬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5. 반원들이 고린도전서 11:23-35절을 읽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모든 반원들이 26절을 당신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학습공과를 활용하여 "주의 만찬"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라.
6.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을 어떻게 전락시켰는지 먼저 책망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배우기 위해 반원 중 한 사람에게 11:27-29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먹는 법"에 나오는 내용을 활용하여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라.
7. 당신이 빵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먼저 돌아보도록 28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음을 주목하라. 질문,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살펴서 무언가 옳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바울은 29절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29-34절을 반원들에게 읽어주도록 하라. 30절에서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라. 몸이 아프고 병이 들거나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인가?  
33-34절에서 바울이 함께 음식 먹는데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라. 32절에서 언급했던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조언하고 있음을 언급하라.

### 적용격려

8. 반원 중 자원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라.
9. 바울의 오늘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라. 여자와 남자가 예배 가운데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나누도록 하라.

<b>[제 10 과]</b>	<h1>나의 은사</h1> <p>(인도자 지침서)</p>
<b>핵심본문</b> 고전 12:4-31	<p><b>학습 주제</b>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를 내려주신다.</p> <p><b>탐구 질문</b>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p> <p><b>교육 목표</b>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다.</p>

## 성경주제

### 배경이해

고린도전서 12장은 사역의 모자이크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고 깊게 배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신약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고린도전서 12:1,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12:4-13; 에베소서 4:11-13; 그리고 베드로전서 4:10-11절이다. 이곳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나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뽑을 수 있다.

- \* 신약성경의 이러한 목록들은 “예를 듣경우”이다. 그것들은 단연코 조직적이거나 은사의 모든 목록을 다룬 것이 아니다.
- \* 모든 신자들은 사역을 위해 은사를 하나 이상씩 받는다. 그 다양한 목록들은 결코 어떤 신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 모든 영적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들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다.
- \* 그러한 은사들은 함께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지 결코 독불장군 식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다.
- \*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회중은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하고 개인적인 소명에 응답해야 한다.
- \* 다양성 가운데서의 연합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보이는 은사받은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부분들은 경쟁이나 혹은 갈등 없이 사역을 위해 상호연합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 본문해석

#### 여럿이나 하나임(12:4-6)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 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것들 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성 위에 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분쟁이나 다툼 따위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직임은 개개인의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主)'를 위한 것이다. 성도가 그 직임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영역 속에서 봉사하는 것은 곧 주를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임의 열등성 또는 우월성을 따지고 그에 치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잊은 처사이다.

### 은사(카리스마)- 공동체적인 연결(12:7)

카리스마는 은사에 해당되는 헬라어이다. 바울은 8-10절에서 은사의 목록을 열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대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 은사들의 열거(12:8-10)

지혜는 실제적인 적용을,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비밀을 설명하는데 쓰이는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고후 10: 5)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번째와 두번째 은사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성령과 연관지어 말한 것은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의 내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믿음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롬 1 : 17 ;3 :22) 본절의 '믿음'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은사를 의미한다. 이는 바울이 8 : 2에서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단지 사람의 육체 뿐만 아니라 영혼자 마음과 정신의 치료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肢體)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예언함 -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로 하나님에 의해 수여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 초대 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으므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다(요일 4 : 1).

방언에 대한 설명은 학습공과의 내용을 참조하라.

### 하나님이 주권하신다(12:11)

영적인 은사들은 공통적인 기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 교회의 유기체적 이미지(12:12-13)

바울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한 이미지를 예로 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임을 강조하는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있다.

### 연합으로부터 분리하는 일(12:14-20)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다. 즉 비중있고 가치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띠고 덜 사랑스런 발과 귀가 불평하

는 것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 한다.

'발'과 '손' 그리고 '귀'와 '눈' 등은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우월 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교회의 건덕상 무익한 것이다.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하다.

###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12:21-26)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 본질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몸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구성된 몸의 지체들이 상호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임을 보여준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 지체들은 서로 공동체의식과 공동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유기체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여 교회가 가져야 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 사역을 나누어주신다(12:27-31)

다 사도겠느냐...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 바울의 이 수사적인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 몸에 여러 지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직임을 가진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 모두 다 동일한 은사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은사를 감당해야 한다. (3) 은사는 우열을 비교하거나 대립 관계에서가 아니라 협조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시기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교회의 건덕상 무익하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라. 그리고 질문하라;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반원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쓰기, 들키기, 가리키기, 긁기, 흔들기, 박수치기, 끌기, 밀기, 톡톡 치기, 씻기, 나르기, 놓기, 들기, 때리기, 뺨 때리기, 문지르기, 까닥거리기, 악수하기, 누르기 등등. 반원들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해라. 대답이 "예," 이든 "아니오" 이든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라. 학생들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언급했지만 그것이 결코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라. 이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언급하지 않은 두 세가지 다른 예들을 열거하라.

2. 의문에 찬 얼굴로 손 바닥 하나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나서 팔이 없다면 손뼉을 칠 수 있을지 질문하라. 마지막으로 손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혹은 차거나 생각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몸의 모든 부분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주님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한 몸으로서 움직여야 하는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 학습인도

3. 고린도전서 12:4-11절을 함께 교독할 사람 두 명을 미리 정해 놓아라. 그리고 다른 반원들은 "성령, 하나님, 혹은 주, 같은, 한, 동일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하라.
4. "성령은 같고(4), 주는 같고(5), 하나님은 같다(6)를 각각 언급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라. 그리고 학습공과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여 이를 설명하도록 하라.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도록 같은 성령님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라.
5. 다음 질문들을 던지라: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 은사를 받는가?" 그리고 "은사나 총 몇 개나 되는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학습공과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부분을 반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1 -2 분정도의 시간을 주라. 필요에 따라 질문과 토론을 이끌라. 수업을 시작할 때 열거했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목록을 비교하라. 어떠한 것도 완전히 다 기록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언급하라. 그리고 바울은 단지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은사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라.
6. 고린도전서 12:12-26절을 반원들에게 읽어주거나 혹은 반원 중 한 사람이 읽어줄 수 있도록 하라. 수업시간 시작할 때 했던 활동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것은 이러한 목적, 그리고 다른 것은 저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라. 12절과 13절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몸과 교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되었는지 설명하라.
7. 반원 중 한 사람이 고전 12:27-31절을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내용을 당신의 말로 읽거나 혹은 기록하라.

## 적용격려

8. 반원 중 자원자 두 세 사람이 은사에 대해서 특히 이번 수업시간을 통해 새로 배운 내용을 당신과 반원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필요하다면 그 것에 대해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라.
9.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라:
  - a.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 b.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두 개의 은사를 받는다.
  - c. 어떤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거나 중요한 것은 없다.
  - d.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이다.
  - e. 우리는 서로 섭기고 세우기 위해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

<b>[제 11 과]</b>	<h1 style="margin: 0;">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h1>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b>핵심본문</b> 고전 13:1-13	<p><b>학습 주제</b>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p> <p><b>탐구 질문</b>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p> <p><b>교육 목표</b>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나의 인생에서 일어날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는다.</p>

## 성경주제

### 배경이해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신성시되는 성경 말씀 중의 하나이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 -분열, 소송, 부도덕, 미숙, 예배의 왜곡 -을 생각해보라. 분명히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묘약이 필요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를 잊기 전에, 모든 신자와 모든 교인들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갑절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구절과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도록 도전하고 있다. 교회의 하나님을 교훈하고 있는 12장과 방언과 은사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14장 사이에 사랑이 지속적인 믿음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13장을 삽입한 것은 아름다운 조화이다.

### 본문해석

#### 은사를 받았으나 사랑이 없으면(13:1-3)

고린도 교인들 은사를 오용하며 사랑은 없이 그들을 자체를 중대시하며 자랑하였다. 여기 본문에 있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그때 초대 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은사였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도 모두 다 사랑을 가지고서야 그 의의를 성립시킨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자는 남을 위하여 희생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올 줄 아는 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진정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혹은 어떤 명예를 위하여 행하고, 혹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행하기도 한다. 그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마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동자 자신은 진정한 유익을 보지 못한다.

##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 이 두 가지 덕행은, 공격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음이다. "오래 참고"란 헬라 원어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함을 이름이니, 곧, 격동성 있는 감정을 포함이다. 그리고 "온유"란 말은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이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성급한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덕을 행할 수 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 여기 기록된 세 가지 말씀도 서로 연락(連絡)있는 한 뭉치이다. 이 셋은, (1)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경쟁(競爭)하는 심리로 범하는 죄를 범치 않음이고, (2) 명예주의를 가지지 않음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기독자의 별명은 사랑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그는 독생자의 속죄 희생(贖罪犧牲)을 받음에 따라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요일 4:9-11).

"교만치 아니하며". "교만"은 스스로 높아진 심리이다. 사라이 일단 스스로 높아지면 낮아지는 처세를 못한다. 그가 겪손을 힘쯤도 실상은 높아지기 위한 심리로 그리하기 쉽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 이 두가지 말씀도 역시 서로 통합이 있는 한 뭉치이다. "무례"란 말은 합당치 않게 행함이다. 그것은, (1) 공중을 위한 예의가 없이 행함을 가리킬 수 있다. 그는 개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하나님 백성)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살 줄을 알아야 된다. (2) 권위(權威)를 존중히 하지 않음이 역시 "무례"에 속한다. 이 세상에는 권위라는 것이 있다. 실례를 들면, 부모는 자식의 권위요, 선생은 제자의 권위요, 노인은 젊은 자들이 권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셨다. 사람이 땅의 권위들을 존경하도록 된 것은, 그들이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敬畏)에 이르는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상습적으로 개인적 유익 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 이 두마디 말씀도 서로 유사한 방면을 가진 한 쌍이다. 성내는 것이나, 악한 것을 생각함은 둘 다 악독한 심리를 발함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기독자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에 가해자에게 복수를 안 할 뿐 아니고 그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않음을 의미한다. 벤전 4:8에 말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였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불의는 하나님의 원수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그것을 기뻐할 수 없다. 시 5:4에 말하기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라고 하였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는 뜻은, 복음 진리가 좋아할 바(복음 진리가 가르친 선과 의)를 기뻐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견디라고 명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신 것은,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인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동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줄을 아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

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도리어 복된 소식이다.

### 사랑의 영원함(13:8-10)

여기 이 말씀은, (1) 사랑이 내세에까지 들어가서도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과 (2) 예언, 방언, 지식등은 내세에 이르러서는 폐지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 사랑과 내세와의 관련성을 가르친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사랑이 이 세상에서도 존속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깜깜한 세상에도 내세의 요소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일 4:8), 그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화목 제물로 삼으신 사건으로 나타내셨다(요일 4:10).

### 한 사실에 대한 두 가지 예화(13:11-12)

11절은, 위에 관설된 "부분적"지식이 어떤 것임을 밝혀 준다. 그것은 비유컨대 "어린 아이"의 지식과 같다. 어린아이의 지식은 어떤 것인가? 어린 아이의 지식은, 비판적이 못되며, 사색적이 못된다. 그들은 감각적이다. 이것은 사람이 현세 생활에서 가지는 지식 방법을 표본으로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 중심이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무관심하다.

12절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한 이유는 옛날의 거울은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존재(存在)에 있어서 확실하나 그 정체(正體)는 전적(全的)으로 알기 어려울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떤 별들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 최고의 진리로 다시 돌아감(13:13)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한 표현으로 요약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실존적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소망도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역동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수업 시작과 함께 두 세 사람을 짧게 응시하고 나서 다른 한 사람의 눈을 응시하라. 반원들에게 질문하라;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종일 오직 사랑만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남자와 여자간에 나누는 사랑, 가족간에 나누는 사랑, 심지어 친구간에 나누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라.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말한다는 것을 언급하라. 이 것은 온유와, 이해와, 용서, 그리고 친구이든, 원수이든 모든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라; 만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

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종일 사랑만을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몇 사람을 지적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라.

2.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아가페(AGAPE)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설명하라. 학습공과의 개요부분을 참조하여 설명하라.

## 학습인도

3.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들, 특히 방언을 말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그리고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을 묘사하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들어보자"라고 말하라. 고전 13:1-3절을 읽어라. 그리고 다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절: 바울은 다음 과의 주제인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랑이 없이 말하는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은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2절: 다음으로 바울은 커다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뚫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3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난한 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4. 고전 13:4-7절 말씀을 온 반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당신이 먼저 읽고 다음에 반원들이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라.

5.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사랑이 아닌지에 대해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그는 지금 죄악이 가득찬 고린도 지역의 교회 사람들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라. 바울이 언급했던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의 내용들을 설명과 함께 언급하라. 바울은 단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라.

6. 4-7절 까지의 말씀을 토론하기 위해 반원들이 한 반원으로서, 혹은 교회의 한 멤버로서 바울의 아가페적인 사랑의 표준에 이르고 있는지 질문하라. 아가페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행해서 우리의 삶의 한 습관이나 양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임을 설명하라. 반원들이 4-7절을 다시 독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더 잘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발전시켜야 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하라.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몇 분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라.

7. 반원중 한 사람이 고전 13:8-13절 말씀을 읽도록 하라.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당신이 즐겼던 어린 시절 놀이들, 당신이 갔던 곳들, 혹은 당신이 가졌던 경험들의 일부를 회상하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모두 실제의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 혹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울을 보듯 회미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지금의

삶들을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혹은 당신을 정확하게 비쳐주지 못하는 거울의 한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회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온전한 때가 올 때 우리는 우리가 마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것처럼 지금의 때를 회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라. 그리고 말하라,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고전 13:13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 적용격려

8. 이번 과의 주제를 같이 읽어라,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질문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해 고전 13:4-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라.

9. 말하라, "사랑은 당신과 나와 함께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라.

<b>[제 12 과]</b>	<h2 style="margin: 0;">예수님을 전하기</h2>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p style="text-align: right;"><b>핵심본문</b> 고전 14:1-25</p> <p style="text-align: right;">학습 주제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탐구 질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당신은 얼마나 사모하며 실행하고 있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교육 목표 예언과 방언의 중요성을 비교한다.</p>	

### 성경주제

#### 배경이해

바울은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 폭넓게 토론하면서 동시에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다룬 것에 반해 방언에 대한 이슈에 정면으로 대면한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 스타일을 점검하고 예언이나 말씀 선포를 강조하라고 도전한다. 그는 예언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실재적이고 강력한 두 가지 이유를 기록했다. 예언은 (1) 신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2)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 본문해석

##### 예언과 방언의 비교(14:2-5)

14:2-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곧, 방언(方言)은 이 세상의 어떤 외국말이라 하고, 그것을 말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외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그 말을 배운 자가 그 말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없는 경우). 그러나 이

해석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귀절 하반에 있는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말씀을 보니, 그것이 영적 방언이고 외국어를 가리킴이 아니다.

예언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세워 나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신자들의 산양 사상을 증진 시킴이다. "권면"은 경계하여 양심과 의지로 옮은 데로 움직이게 함이고, "안위"는 난관과 텁박을 당한 신자들에게 소망을 보여 주어 그들의 정서(情緒)로 하여금 기쁨과 용기를 취하도록 하여 줌이다.

14:5. 바울의 논조는 그때의 방언 은사를 전연 불필요하다고 함이 아니고, 다만 그것에 대한 과대 평

가(過大評價)를 막는 것 뿐이다. 방언은 통역되지 않으면 남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

### 복음을 나누는 가치(14:6-12)

14:6. 바울은 자기로서 방언하는 것으로는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단언하여, 앞서 말한 논조를 강화시킨다.

14:7-12. 생명 없는 악기(樂器)같은 것들도 곡조의 분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의 뜻을 알려 주지 못한다. 알아 듣게 하기 전에는 듣는 자들에게 무익한 소리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명 없는 도구들의 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어지는 예화들은 모두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때(14:13-17)

방언은 지능(智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높은 충계에 속하는 영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는 자 자신도 지능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남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공동 예배자(共同禮拜者)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임을 지적한다. 예배는, 단지 신비적(神秘的)인 느낌만 위주하지 않고, 지식 성품을 통하여 받아질 진리에 해한 심령의 반응(反應)을 보다 중요시한다.

###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함(14:18-19)

14: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 신자들 중 받은 은사를 잘못 쓰므로 폐단이 있는 때에, 그것을 교정시킬 만한 자격자는 같은 은사를 받은 자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으므로, 이 은사를 폐단 있게 사용하는 자들을 경계할 권위(權威)를 가졌다.

14:19. 남이 아는 말로 가르쳐 남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남들이 모르는 방언을 말함보다 교회에 유익하다고 바울은 역설(力說)한다. 기독자가 받은 은사는, 자기의 독점 사용(獨占使用)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봉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교회 앞에서는 언제나 방언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 성장하고 대화하라(14:20-23)

14:20.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통역 없이 방언을 회중(會衆)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지혜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하나의 호기심(好奇心)과 자랑거리로 구경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더러 아이들처럼 유치하게 행하지 말라고 한다.

14:21. 여기 인용된 사 28:11,12의 예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다 이사야 시대에 유대인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장차 외국인들(앗수르 사람들)이 유대를 침략하여 정복하고 지배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일반이 깨닫지 못하는 말로 회중에게 말하면 그것은 그 회중에게 대한 일종의 벌이다. 그것은 유익을 주는 일이 아니다.

14:22-23.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곧, 방언하는 결과는, 그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쳐 주지 못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 뿐이란 뜻이다. 이것은 방언의 결과가 어떠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 이것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하면 그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믿는 데로 나아가진다는 뜻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게임 경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지 질문함으로서 대화를 장을 열도록 하라. 그 팀이나 혹은 개인이 그 경기를 하면서 모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시합을 하는지 질문하라. 모든 선수나 혹은 팀들은 그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벌인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대화를 이끌라.
2. 이번과의 제목인 "예수님을 전하기"에 주목하도록 하라.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는 바울로부터 만일 어떤 영적 은사가 가장 첫 자리에 올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 영광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 혹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은사임을 언급하라.

### 학습인도

3. 고린도전서 14:1-5절을 다섯 명의 반원들이 각각 읽도록 지정해주라. 큰 소리로 각 구절을 읽게한 뒤,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라.
  - 1절: 상반부의 내용은 지난주에 배웠던 사랑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하반부는 그들에게 은사를 열심히 사모하라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혹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다.
  - 2절: 독특한 소리를 내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천국방언을 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성숙함을 보여주는 은사로 생각했다. 바울은 이러한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3절: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더 중요한지 설명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을 들음으로써 배울 수 있고, 말씀으로부터 격려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만 교회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준다.
  - 5절: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이 참된 은사이며 사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방언을 말하는 것이 통역이 없이는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바울은 더 좋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혹은 예수님을 전하는 은사라고 말한다.
4. 고전 14:6-12절을 반원들에게 소리내서 읽어주라. 말씀을 읽은 뒤에 바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세 가지를 지적하라.
  - (1) 생명 없는 악기(樂器)같은 것들도 곡조의 분별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의 뜻을 알려 주지 못한다.
  - (2)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 전쟁 때엔 나팔 소리로써 군인들에게 경고를 준다. 그것은 곡조로써 뜻을 표시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 (3) "허공에다 말함" - 은, 효과 없이 말한다는 뜻이다.
5. 질문하라, "당신이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대답을 기다리지 말고 고전 14:13-17절 말씀을 읽어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홀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면 방언은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이 되어야 한다.

6. 만 개의 어휘를 모든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지 질문하라. 반응을 들어보고, 당신이 많은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든, 없든 만 개의 단어는 너무나 많은 단어이다. 고전 14:18-22절을 당신이 읽는 동안 반원들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잘 따라오도록 하라.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많이 말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음을 언급하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고 비성숙한 일이라고 했음을 지적하라.

### 적용격려

7. 고전 14:23-25절을 자원자가 읽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 "바울에 의하면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인가? 방언의 은사인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인가?" 예언의 은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결론짓도록 반원들을 이끌라.

<b>[제 13 과]</b>	<h2 style="margin: 0;">부활의 소망</h2> <p style="margin: 0;">(인도자 지침서)</p>
<p style="margin: 0;"><b>핵심본문</b></p> <p style="margin: 0;">고전 15:3-20, 35-44, 50-57</p> <p style="margin: 0;"><b>학습 주제</b></p> <p style="margin: 0;">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p> <p style="margin: 0;"><b>탐구 질문</b></p> <p style="margin: 0;">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p> <p style="margin: 0;"><b>교육 목표</b></p> <p style="margin: 0;">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다.</p>	

### 성경주해

#### **배경이해**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 그는 진실로 다시 사셨다." 이것은 기독교회의 끊임 없고 변함없는 확신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기본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교회들의 신조들이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했지만, 분명 어떤 무리들은 영혼의 부활에 대한 개념으로만 받아들였다. 바울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능력과 생명의 핵심을 빼내버렸다.

#### **본문해석**

##### **가장 중요한 것(15:3-8)**

15:3-8.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 신학의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언급한다: (1)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2) 그리스도께서 둘 하셨다; (3)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으로 친히 본 자들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된 것이었다.

(1) "개바". - 그는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서(행 10:41), 그가 얼마나 확실성 있게 주님의 부활한 사실을 안다고 증거하였는가? 음식을 같이먹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 그 먹는 동안에 잘 살필 수 있으며, 또한 그 사실로인하여 주님의 몸이 음식을 잡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몸이었다는 것이 알려진다.

(2) "열두 제자" -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다가 죽은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직후엔 열한 사도만 남았었다. 여기서 "열둘"을 관설한 목적은, "열둘"이란 제자단(弟子團)의 명칭을 이름이

다. 한 사람이 없어졌어도 그들의 단체 이름은 그냥 "열둘"이었다.

(3) 오백여 형제. - "오백"이란 숫자는 대중의 숫자이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소수에게만 아니고 대중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는, 소수에게만 나타나시는 불완전한 사실이 아니고 대중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임을 알게 한다.

(4)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니, 그로서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의 본래 형이신 사실을 더 잘 식별할 수 있었겠다. 그는 이렇게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후에 기둥 같이 여김이 된 일꾼이 되었다(갈 1:19, 2:9).

(5) 모든 사도에게. - 여기서 "모든 사도"라고 한 것은, "열둘"이란 단체에 국한된 말이 아니겠다. 이것은 "사도"란 명칭을 좀 넓은 뜻으로 써서 다른 사람들, 예컨대 바나나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한 말인 듯하다.

(6)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계도. - 바울은 예수님을 팝박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고 인격이 전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 증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원수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 은혜를 증거함(15:9-11)

바울은 이제 그의 개인간증을 한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부족을 말하고 자기와 같이 악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보고 변화되고 은혜로 사도가 되어짐을 지적하였다. 즉, 큰 죄인이 변화하여 신앙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가 본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진리이기 때문이다.

### 부활을 부인하지 아니함(15:12-20)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여섯 가지로 설명한다.

(1) 만일 죽은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15:13)

(2)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나 믿음은 헛된 것이다(15:14)

(3)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짓 증거자이다(15:15a)

(4) 만일 죽은자의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도 없다.

(5)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망한다.

(6)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믿고 살되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15:19)

15:20. "잠자는 자"란 말은 죽은 자들을 비유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의 부활도 얻어진 것이다.

### 부활한 몸(15:35-44)

15:35-41. 자들이 의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장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같은 모험적 신앙을 가짐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더러, 회의주의(skepticism)로 흐르는 악도들에게 속지말라고 다짐한다. 회의주의자들은 행실이 부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회의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바울은 세 개의 비유를 사용한다.

(1)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 심기운 종자에서 그 종자의 모양과는 다른 형체의 줄기와 잎이 나온다. 그것은 또한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는 때(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신자의 몸이 그 본래 무덤에 들어가던 몸과는 다른 것이다.

(2)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그 몸들의 구조와 모양이 각각 다르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가, 인간들을 부활시키는 사역에 있어선, 땅에 있던 그들의

육체의 모습과 같이 하셔야만 되는 제한을 받을 것인가? 그럴리는 없다.

(3) "하늘에 속한 형체"란 것은, 다음 귀절이 명시한 바와 같이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의미하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서 사는 것들의 몸들을 가리킨다. 양자의 모습이 서로 다른 사실에 근거하여,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다양성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다시 살아날 몸을 현세 사람의 몸과 다르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15:42-44.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의 결론을 맺는다. 바울은 여기서, 현세의 인체와 내세의 부활체와의 대조를 보여주며, 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립되며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 둘 사이에 대조는, -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 의 대조이다. 이것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저것도 존재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여기 말한 각기 대조 중에 한 편만 존재케 할 수 있을가? 하나님은 권능에 제한 받은 신이 신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 예수 안의 승리(15:50-57)

15:50-56. "비밀"이란 말은, 전에 감춰었다가 지금은 계시 진리를 이름이다. 이것은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염두에 둔 말이다.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그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몸이 변화된다. "마지막 나팔"은 비유니, 주께서 재림하시어 성도들을 모으심을 가리킨다(마 24:31).

"우리"란 말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남아 있을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사도가 자기 당대에 주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던가? 그가 재림이 자기 생전에 될지도 모른다는 신앙은 가졌을 것이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재림의 날과 때를 모른다고 하셨으며 또한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마 25:13; 농 12:40). 그러므로 바울이 자기 당대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상을 가진 경우에도, 그것이 잘못은 아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용하리라. - 호 13:14 참조.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 사실에 대하여는 55-57의 말씀이 잘 보여주었다. 곧, 사망은 죄를 이르며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 성립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수하여 주셨으니만큼 사망은 폐배를 당하였으며 폐지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삶과의 연결

1.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칠판에 쓴 것을 큰 소리로 읽어서 반원들의 반응을 유도하라. 어떤 사람들은 고수공포증, 비행기 타는 일, 혹은 폐쇄 공포증 등이 특별한 두려움이라든 것을 언급하라. 사람들은 실직, 심각한 질병, 혹은 사고, 혹은 가정을 잃는 일, 혹은 기아, 혹은 강도당하는 일과 같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 한다는 것을 언급하라. 하지만 죽음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임을 지적하라.

2. 칠판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집어 넣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질문하라, "당신의 가장 커다란 소망은 무엇인가?" 반원들이 그들의 소망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건강을 위한 소망, 부를 위한 소망을 갖는 것도 좋은 것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소망은 죽은 뒤에 생명을 갖는 것, 혹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언급하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라. 부활이라는 단어를

지난 주 수업시간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반원들이 그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라.

## 학습인도

3. 이번과가 "교회 생활" 단원에 대한 마지막 과이며 동시에 고린도전서 성경공부 시리즈에 대한 마지막 과임을 언급하라. 우리가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애쓸 질문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다는 우리의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임을 언급하라.

4. 바울이 거의 항상 그랬듯이 그가 항상 전했던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가리키라. 핵심구절에 나오지 않는 고전 15:1-2절을 읽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5. 2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하라, "너희는 복음으로 구원 받았다." 질문하라, "복음이 무엇인가?" 답을 찾기 위해 고전 15:3-4절을 읽도록 힌트를 주라. 복음의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만일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습공과의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참조하라.

6. 다음과 같이 언급하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면 이것을 들어보라..." 그리고 나서 고전 15:5-11절 말씀을 읽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후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설명하라. 또한 바울은 한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매우 펉박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더불어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당시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상기시키도록 하라. 이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이러한 그의 사랑 많으신 부르심은 바울이 다른 어떤 선교사들보다 더욱 열심히 사역함으로써 헛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라.

7. 고전 15:12-21절을 반원들이 읽도록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15:12-20절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라.

8. 반원들에게 우리가 죽은 뒤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라.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도움을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언급하라. 고전 15:35-44절 말씀을 당신이 큰 소리로 읽고 반원들은 이 구절에 대한 학습공과의 내용을 읽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반원 중 한 사람이 학습공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몸이 될 것인가?"에 나오는 내용을 한 사람이 읽도록 하라.

9. 15:50-57절의 내용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미리 다음과 같이 나누어 종이에 준비하라.

\* 인도자: 50-54절 상반부, 그리고 57절

\* 반원 1: 51, 54절 하반부

\* 반원 2: 52, 55절

\* 반원 3: 53절 상반부, 56절

\* 모두: 53절 하반부를 같이 읽는다.

## 적용격려

10. 학습공과 "만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의 내용을 반원 중 한 사람이 읽도록 하라.

11.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라. 반원들이 이 수업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혹은 새롭게 하였는지를 확인하라. 질문하라,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당신이 지금 해야될 일은 무엇인가?"